

무뚝뚝한 경상도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진짜 영토

우리 가족은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들이다. 나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도 부끄러워서 매년 어버이날에도 영혼 없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다. 무뚝뚝하기가 마치 가을날의 쓸쓸한 바람과도 같았던 우리 가족들에게 어느 날 우연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군단에서 추진한 ‘추석맞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100감사편지 나누기’ 캠페인이었다.



오 지 은 중사
육군8군단 인사처

맞벌이였던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큰 굴곡 없이 자랐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끔 못된 말을 내뱉곤 했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때 했던 말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비수를 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차마 “그때 그런 말 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는 정말 최고의 부모님이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 부모님의 덕이었음을 뒤늦

게 깨달을 수 있었다. 부모님이 내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고, 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28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100감사편지를 작성하는 동안 몇 번이나 울컥했는지 모른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한 자 한 자 쓸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고, 존경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다. 다 쓴 후에도 “부끄러운데 보낼까 말까”하고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맘을 전할 수 있을까? 부모님도 편지를 보면 분명히 좋아하실거야’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소포를 집으로 보냈다.

양양에서 대구집까지 택배가 배달되는

동안 내 마음은 콩닥콩닥 떨렸다. 드디어 100감사편지를 받아 본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다 기억해? 이것까지 기억할지 몰랐어. 너무 감동했고 우리 딸 대견하다”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곤, 갑자기 “이건 진짜 코팅해서 액자에 걸려둬야지”라고 하길래 그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코팅해서 대단한 우승트로피처럼 잘 보이는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다고 한다.

이런 엄마와는 달리 별 반응이 없는 아빠가 서운하게만 느껴져 직접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 사랑하는 딸이 보낸 100감사편지를 본 소감이 어때요?” 아이처럼 툭툭거리는 내 전화에 아빠는 “허허, 그 자식”이라고 말하며 그저 소리내어 웃기만 했다. 평소 아빠의 무뚝뚝한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엄마와 함께 편지를 읽으며 아빠가 얼마나 감동 받았고 많이 기뻐했는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족애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100감사편지를 쓸 수 있게 해 주신 군단장님과 캠페인을 추진한 공보정훈부 간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장 상 훈 해군소령
합동군사대학교

국가의 경제력은 국가가 보유한 자원, 즉 땅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특이하다. 영토의 넓이는 세계 107위에 불과한데, GDP는 10위 수준이다. 이는 땅으로부터 자원을 채취하지 않고 전 세계 각 국과 수출·수입을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라는 능력 때문이다. 즉, 세계 10위 경제력의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타전, 이른바 경제영토에서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영토에서의 활동은 99%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바다의 실크로드를 해상교통로라고도 하는데, 이는 늘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이 의한 납치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미국, 프랑스를 포함한 강국은 군을 파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부터 군함을 보내 우리 국민의 선단을 호위하고 있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 신속히 이동해 일정 기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군전력을 기동함대라고 한다. 이들은 해상교통로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관함식에 참가해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영토가 확대되고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는 만큼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적뿐 아니라 국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기동함대는 바빠질 예정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바다를 통한 영토 확장, 즉 해양권의 추구 운동이 한창이다. 2019년 중국은 분쟁지역인 다오위다오 및 주변 부속 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고, 2020년까지 한반도의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도련선 안의 바다를 내해화 하겠다고 표명했다. 2020년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15년 동안 한 목소리를 내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2007년부터 해양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해상에서 자위대의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로 풀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해상에서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전개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필요성도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국방부는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경항모, 이지스함,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할 것을 표명했다. 6·25전쟁 이후 방위사업의 목표가 ‘북한의 위협’에만 맞춰져 연안작전에 집중됐던 해군의 과거를 고려했을 때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최소한 현재 수준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기동함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호크아이 그리고 네이비아이

<Hawk-eye>

<Navy Eye>

어느 날 대원들과 생활반에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기회를 잡은 공격수의 강력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골라인에 떨어졌다. 골인지 노골인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었고 대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주심은 노골을 선언했지만 해당 팀에서 비디오 보조 심판(VAR)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호크아이’ 판독 결과 예리하게 라인에 걸친 ‘골’이었다.



박 정 우 병장
해군1함대 동해합동작전지원소

‘호크아이’는 구기 종목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으로 공이 떨어진 위치를 경기장 내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가 포착해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해 보여주며, 심판이 이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감시체계인 것이다.

나는 동해합동작전지원소에서 근무하는 감시병이다. 나는 ‘호크아이’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네이비아이’가 돼야 한다. 짧게는 수 킬로미터, 멀게는 수십 킬로미터를 탐지하는 레이더로 실제 표적과 레이더 반사파와 같은 허위 표적, 파도로 인해 표적이 탐지됐다 안 됐다 하는 상황, 강우, 파도와 같은 기상상태 등 복합적 상황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감시요원은 ‘네이비아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감시요원의 기량향상과 근무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얼마 전 작전사 주관으로 개최된 전담감시대 감시요원 감시경연대회가 있었다. 함대 대표로 선발돼 타 전담감시대보다 신속,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최고의 전담감시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평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경연대회를 준비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감시팀원들과 평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팀원들과 서로 보완하며 노력한 결과 작

전사 최우수 감시대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최우수 감시대에 선발되자 감시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또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시는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팀원들과 협업하고, 또 해군과 육군, 해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진 감시병이 ‘네이비아이’라는 하나의 첨단체계라고 생각한다. ‘호크아이’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찍은 소스를 바탕으로 공의 궤적을 추적하지만, ‘네이비아이’는 진짜 표적과 허위 표적을 구별해야 하며, 무엇보다 ‘호크아이’와 다르게 필요한 순간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를 표적을 찾아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시경연대회를 준비하며, 또 지금도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근무하는 한 수병으로서 남은 군 생활 기간을 최고의 전담감시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완벽한 작전 임무 및 조기경보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다. 또한, 남은 군 생활 동안 나만의 노하우를 후임 상황병들에게 알려주어 더 수준 높은 감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카툰, 사진, 그림, 캘리그라피
 △분량·크기: 자유 (산문·시·독후감·편지는 공백 포함 1400자 이내)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군인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양식 이용해 이메일(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으로 문의)로 제출
 △이메일 주소: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letter@mnd.mil
 △문의: 군) 947-3717, 일반) 02-2079-3717